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하나로...새 통합기관 출범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특별회계 설치 추진 급식비·돌봄 등 격차 해소 위해 '선도교육청' 선정 운영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로 통합된다.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은 간판을 내리고, 2026년까지 모든 기관이 새 이름을 단 보육·교육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눈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특별회계' 설치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만 5세 교육비 지원 확대
교육부는 2023~2024년을 유보통합 1단계로 보고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선도교육청은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 자체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로 2024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통해 1인당 28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만원 이상, 전국 평균적으로 13만 500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곧 출범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2013년부터 동결된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를 내년부터 현실화해 유치원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의 야간 연장 돌봄, 휴일 보육도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 역시 올해 하반기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에서 공개된다.

재정 통합을 위해서는 기존 보육 예산 이관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한다. 특별회계에는 기존에 따로따로 집행되던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예산과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지자체 등을 통해 약 10조원,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을 통해 약 5조원 등 총 15조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교사 처우 개선에 2026년부터 약 6천억원, 시설 격차 해소에 약 8천억원 등 유보 통합 이후 추가로 매년 2조1천억원~2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8월 기준으로 예산 당국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 교육재정이 향후 5년간 매년 5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돼 있다"며 "(유보통합에 따른) 자원 (부족) 문제는 발

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추진 위 논의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 시안, 내년 말에 확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근로 여건 개선 방안, 표준 보육과정(0~2세)·누리과정(3~5세)과 초등학교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개정, 시설·설립 기준도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과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

◇기존 유치원·어린이집, 2026년까지 통합기관으로 전환 추진
교육부는 2025년부터 유보통합 2단계로 보고 본격적인 유보통합을 시행한다. 기존의 유치원,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순차적으로 전환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6년까지 모든 기관이 새로운 통합기관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새 통합기관에 맞

는 교사·시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존 기관을 최대한 새 통합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명칭과 법적 지위 등은 추후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교육계에서는 새 통합기관의 명칭을 '유아 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으나 교육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새 명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통합기관에 다닐 대상 연령 아동은 기본적으로 0~5세이지만 지역 인구 구조, 수요에 따라 만 4~5세만 운영하거나 만 0~2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 모델이 운영될 수도 있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간다. 완전히 도입되는 것은 2026년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한다.

한편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와 유보통합추진단(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호남대 'AI 큐브 캠프', 디지털 꿈나무 키운다 교육부 '디지털 새싹 캠프' 기관 선정...삼육중·송원초서 교육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디지털 새(NEW)싹(Software-AI Camp) 캠프' 사업에 선정된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대규모 'AI 큐브 캠프'를 운영한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오는 2025년 SW교육 수업 전면 확대를 앞두고 학생 간, 지역 간 디지털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교육청이 참여하는 총사업비 1,170억 원의 메가 교육 프로젝트다.

'디지털 새싹 캠프' 사업을 맡은 호남대 AI 큐브 캠프 사업단(단장 백관)은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원리 및 코딩과 구현까지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된 호남대 브랜드 인공지능 교육을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삼육중학교 25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6일 인공지능 개념과 메타버스, 아두이노 기본 원리 교육에 이어 7일 아두이노 휴지통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360명이 참여하는 송원초등학교 캠프에서는 9-10일 3-4학년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체험과

햅터 로봇 실습을 통한 자동차 제어원리 교육에 이어 11일에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인공지능개념과 인공지능활용 활용 온라인수업을 실시한다. 또 13-14일에는 5-6학년들을 대상으로 엔트리 블록코딩,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 실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호남대 AI 큐브 캠프 사업단은 캠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호남대 교수진들을 비롯해 인공지능협회, 으뜸 정보기술 전문강사, 한국어성정보인협회 고급 SW교육 전문 강사는 물론 보조강사로 참여할 호남대 재학생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AI 큐브 캠프 백관 사업단장은 "그동안 AI 대중화 교육을 선도해 온 호남대학교가 이번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을 통해 다시 한번 'AI특성화대학'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우리지역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정부의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산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대구 계명대와 맞손...대학혁신 방안 모색

업무 교류회·캠퍼스 투어 진행

조선대학교와 계명대학교가 대학혁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조선대학교는 최근 본관 청출어룸에서 계명대학교와 대학혁신, 교육시설 공유 등을 위한 업무 교류회를 진행했다.

교류회에는 최명숙 계명대학교 교육혁신처장, 김경호 교육혁신부처장 등과 민영돈 조선대 총장, 조규만 교육혁신원 부원장, 권구락 대학혁신사업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지난 1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2020년) 업무협약 체결한 이래 공동 비교과 프로그램인 'Change Maker 달빛동맹'을 3차례 운영해왔다.

아울러 2023학년도에 조선대와 계명대가 달빛동맹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계명대 관계자들은 업무협의 후 링크사업단, e스포츠 경기장, 도서관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비



최민 계명대학교 관계자들이 조선대학교를 방문, 대학혁신 등을 위한 업무 교류회를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과통합관리센터, 원스톱학생상담센터 등을 둘러보는 조선대 캠퍼스 투어에 참여하기도 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양 대학이 공유 비교과 프로그램 'Change Maker 달빛동맹'을 공동 운영하

동신대, 우즈벱서 한국어·역사 봉사활동

사회봉사단, 태권도·K-pop·한국 문화 체험 등 진행

동신대학교 학생들이 우즈벱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해외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신대 사회봉사단은 지난 1월29일부터 6일까지 9일간 우즈벱스탄우르겐지 지역에서 해외봉사를 실시했다.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해외봉사에

는 재학생 21명과 교직원 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우즈벱스탄 우르겐지의 국립대학교, 교육대학교, 초·중·고등학교 등 4개 기관에서 매일 5시간씩 봉사활동을 했다.

현지 주민과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 태권도, K-pop, 한국 문화 체험(한지 접기, 예쁜 손글씨 쓰기) 등의 수업을 진행하고 시력 검사 후 안경을

무료로 제공했다.

우즈벱스탄 언어와 역사를 배우는 상호 교류 시간도 마련했다.

앞서 동신대는 우즈벱스탄 현지 대학교, 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어말하기 대회, 해외봉사, 한국교육원 한국어교사 연수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양일승 동신사회봉사단장은 "우리 학생들이 해외봉사를 통해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경험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